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보성-고흥 한전 추가변전소·고압송전선로 설치 반대”

군민 반대 쫓기 대회...“주민 몰래 설치” 주장

한전 “사업 초기 단계...모든 절차 공개 진행”

보성 지역 주민들이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변전소’ 설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변전소 건설 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특양면 사무소 광장에서 군민 반대 쫓기 대회를 진행했다.

쫓기대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주민 70여 명만 참여했다.

주민들은 “한전의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와 보성-고흥 간 고압 송전선로 개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주민과 보성군에 공식 사과할 것을 한전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압암리에 사업을 진행했다. 임의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 변전소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해 사업을 강행했다. 행정청인 보성군을 배제하고 지역에 대한 고

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사업이 추진되는 특양면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동 서식지로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특양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은 보성군에서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곳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져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선천군 대책위원장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 건강을 담보로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회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현지 사정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정해 달라”고 밝혔다.



보성 지역 주민들이 24일 특양면사무소 앞에서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변전소’ 설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독자)

한전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다.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 대표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외부 인사 등과

사업을 논의하는 단계다.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업의 윤곽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연다. 모든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주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첫 지원

5000마리 대상...1인당 최대 3마리 최대 9만원

광주시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이하 반려인)에게 1인당 3마리까지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동물등록비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반려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시 동물등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해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 유기동물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내장형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비 일부 지원정책을 도입했다”며 “유기동물 예방효과가 크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구청에서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효과가 크지만 마리 당 4만~7만원의 장차 비용이 들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올 여름 ‘평균이상’ 덥다” 예측...다음달에 비 많이 올듯

전체 강수량 평년 수준...국지성 비 예상 6월·7월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워 8월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가장 높아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국지성 비가 많아 지역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6~8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6월과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월별로 보면 6월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은 20%로 나타났다.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조사됐다. 6월 평년기온은 21.1~21.7도, 7월은 24.0~25.2도다.

8월은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낮을 확률은 20%로 분석됐다. 8월의 평년기온은 24.6~25.6도다. 올여름 강수량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국지성 비가 많이 내려 지역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며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가장 높았고, 적을 확률은 20%로 나타났다. 6월 강수량의 평년범위는 101.6~174.0mm다.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평년 범위는 각각 245.9~308.2mm, 225.3~346.7mm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철 전망을 기후감시 요소와 기후예측모델,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라니냐는 봄철 동안 약화돼 이달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라니냐가 종료되는 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북태평양과 열대서태평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온도와 지구온난화 경향은 기온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올해가 라니냐 종료 해인데, 과거 종료되는 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을 보였다”며 “초여름 강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회의에서는 올여름 북태평양고기압 발달로 동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초여름에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전문가들은 6월과 7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으로 예측했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역시 예상치 못한 블로킹이나 정체성 기압계가 돌발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올해도 예상치 못한 블로킹이나 정체성 기압계가 나타나면서 강수가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마 영향도 있지만 발달한 저기압, 대기 불안정, 태풍 등은 예측 어렵지만 강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돌발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랜선 곡성 여행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안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안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